

찾자리 풍요롭게 하는

茶菓

향긋한 차 한 잔에 곁들여 먹는 다과(茶菓)는 찾자리를 한결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차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다과는 다식(茶食), 약과(藥果), 떡, 과일, 과자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차를 즐겨 마시기 시작한 신라·고려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다.

찾자리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다식(茶食)은 우리나라 고유한 과자류의 하나로 밤가루, 송화가루, 콩가루, 녹말가루, 찹쌀 또는 볶아서 말린 멧쌀가루 등을 꿀에 반죽하여 무늬가 새겨진 다식판에 박아서 만든 음식이다. 조선후기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성호사설>에 의하면 다식은 신라·고려시대에 차를 마시는 풍습이 성행할 때 함께 곁들여 먹던 것으로, 나라에서 올리는 제사인 제향(祭享)에도 쓰였다고 한다.

5월 초순부터 피기 시작하는 송화(松花)의 가루를

밤, 송화, 콩가루 등을 꿀에 반죽
다식판에 찍어 낸 송화다식
은 궁중의 잔칫상에는 필수음식으로

올랐고 민가의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았다. <본초강목>에는 송화의 효능에 대해 '맛이 달고 온화해 독이 없다. 심장과 폐를 부드럽게 하고 풍을 제거하고 지혈을 시킨다'고 적고 있다. 또한 송화는 방부성이 강해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봄에는 오색녹말다식이나 송화다식, 여름에는 찹쌀가루 다식이나 팥, 녹두다식, 가을에는 대추, 잣, 밤다식, 겨울에는 콩, 찹쌀, 흑임자, 찹쌀다식 등이 좋다.

다식 외에도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후 조청을 바른 강정이나 밀가루나 쌀가루에 참기름과 꿀을 넣어

반죽한 후 기름에 지져 꿀에 담긴 유밀과, 같은 재료를 약과판에 박아낸 후 꿀을 기름에 오래 지져 조청에 담긴 약과, 밀가루를 소금과 생강즙만으로 반죽해 기름에 튀겨낸 후 꿀을 묻힌 매과과 등도 차와 함께 곁들이기 좋다.

이 밖에도 견과류나 곡식을 그대로 엮어 꿀물에 섞어 문진 엿강정, 과일이 나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꿀에 조린 정과, 앵두나 살구, 오미자, 모과, 포도 등 신맛이 나는 과일에 꿀을 넣어 끓인 후 모양을 낸 과편(菓片) 등도 찾자리에 자주 오르는 다과들이다.

정제음식 환경연구소장 정세채(경북 바이오 과학대) 교수는

정제음식 환경연구소장 정세채(경북 바이오 과학대) 교수는
“녹차는 냉하기 때문에 곁들이는 음식은 깨와 콩 종류이며 구근(球根)류인 연근, 감자, 무, 당근이나 인삼도 좋은 차와 함께 먹기 좋다”고 말한다.

푸른차문화연구원 오영환 원장은 “녹차는 냉하기 때문에 곁들이는 음식은 양에 속하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고 오통차나 짙은 음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살균작용과 위 보호 효과가 있는 생강이 어울린다”고 말한다.

녹차를 이용한 요리와 다과를 소개하는 <녹차와 채식>을 펴낸 홍승 스님에게 각종 다식 만드는 법을 배워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송화다식
송화가루 1컵, 꿀 3큰술, 참기름 적당량

1. 송화가루에 꿀을 넣고 고루 섞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반죽한다.
2. 다식판에 참기름을 얹고 송화반죽을 밤을 만금씩 때어 꼭꼭 눌러 박아낸다.



삼색다식
푸른콩 1컵, 꿀 3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적당량

1. 푸른콩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볶은 후 절구에 넣고 찧은 다음 키에 까 불려 곱질을 버린다.
2. 곱질을 제거한 콩을 절구에 넣고 곱게 빻아서 고운 체에 쳐서 콩가루를 만든다.
3. 콩가루에 꿀, 설탕을 넣고 되직하게 반죽해 밤을 만금 때어내 다식판에 참기름을 바르고 박아낸다.



깨다식
흰깨 1컵, 검정깨 1컵, 꿀 5큰술, 설탕 2큰술

1. 흰깨는 물에 불려 곱질을 벗기고, 검정깨는 씻어서 물기를 뺀 후 각각 약한 불에서 서서히 볶아 절구에 곱게 찧는다.
2. 볶아 놓은 깨가루 중 흰깨에는 꿀을 2큰술, 검정깨에는 꿀을 3큰술 넣고 반죽하여 사기그릇에 담고 찰통에 깨낸 다음 절구에 썬다. 설탕을 넣고 기름이 나와 반질하게 윤이 날 때 까지 쳐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한다.
3. 반죽을 각각 다식판에 박아낸다.



꽃감대추호두말이
꽃감 10개, 호두 10개, 대추 10개

1. 꽃감을 한쪽을 칼로 잘라서 씨를 제거한다.
2. 호두는 넓게 펴둔 꽃감 위에 놓고 꼭꼭 눌러가며 돌돌 말아서 꽃감 모양을 실려 만든다.
3. 대추는 씨를 빼고 돌돌 말아서 넓게 펴둔 꽃감 위에 놓고 돌돌 말아 놓는다.
4. 잘 드는 칼로 0.5cm 정도 두께로 썬다.

한국차문화협 '차인큰잔치'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 www.koreatea.or.kr)가 5월 2일 오후 1시 서울 창경궁 영춘전에서 '제7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차예절을 통한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부문별 차예절 경연대회와 차 관련 자료 전시회, 무료

차 시음회 등으로 꾸며진다. 오후 1시 개최식에 이어 4시까지 차예절 경연대회와, 6시까지는 축하공연과 시상 및 폐회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5월 23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및 야외광장에서는 '제24회 차의 날 기념 15회 전국 차인큰잔치'가 열린다. 각 지방 회원 및 차인 3천여 명이 참석하게 될 이 행사에서는 차 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차예절 발표, 차 시음회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02)701-0475

옛선인대회, 통합다회 개최

옛선인대회(회장 강우석, <http://cafe.daum.net/teakorea>)가 오는 6월 1일부터 1년간 진행되는 3기 다례사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청월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강좌에서는 <다신전>, <옛선인차문화사 상>, <생활다례> 등을 배울 수 있다. 회비는 교재비 포함 월 4만원.

차맛어때, 차만들기 체험 행사

인터넷 차동호회 '차맛어때(<http://cafe.daum.net/tea3>)'는 5월 1~2일 경남 악양면 '지리산 명차원'에서 '차 만들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차 만들기 실습과 '우리차를 살리는 방법'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회비는 3만원. (055)884-6301.

우리 사찰 차 모임 거제 금강사 금강다회

대중과 함께하는 차문화 주력



지난 4월 18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 열린 금강다회의 현대차 모임.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최대 17만 3천여 명의 포로를 수용했던 거제포로수용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 산화한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다. 4월 18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서는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 신도회와 (사)한국다도협회 거제지부 금강사 금강다회(회장 김수미) 회원들이 현대차 의식을 통해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차를 올렸다.

이 모든 것은 '차문화는 불교든 대중과 호흡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원 스님의 굳은 신념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거제포로수용소 행사도 금강사가 독자적으로 준비, '전쟁의 참상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제시를 설득해 이루어졌을 정도다. 이 밖에도 성도집, 부처님오신날 등 크고 작은 사찰 행사에서도 금강다회의 '차 함께 나누기' 행사는 빠지지 않는다.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과정을 마친 회원들 비롯, 6기 수강생 등 50여 명의 금강다회 회원들은 차를 통해 선인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가 없다'는 성원 스님의 굳은 신념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거제포로수용소 행사도 금강사가 독자적으로 준비, '전쟁의 참상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제시를 설득해 이루어졌을 정도다. 이 밖에도 성도집, 부처님오신날 등 크고 작은 사찰 행사에서도 금강다회의 '차 함께 나누기' 행사는 빠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차문화는 불교든 대중과 호흡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원 스님의 굳은 신념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거제포로수용소 행사도 금강사가 독자적으로 준비, '전쟁의 참상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제시를 설득해 이루어졌을 정도다. 이 밖에도 성도집, 부처님오신날 등 크고 작은 사찰 행사에서도 금강다회의 '차 함께 나누기' 행사는 빠지지 않는다.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과정을 마친 회원들 비롯, 6기 수강생 등 50여 명의 금강다회 회원들은 차를 통해 선인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인더뷰

공경숙 사범



겸양지덕 갖춘 나눔의 차생활 강조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차의 성품을 닮아가고, 차의 향기를 나누듯이 삶의 향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강다회 공경숙(35) 사범은 안으로 겸양지덕을 갖추고 밖으로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나눔의 차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겸손과 배려를 차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 공 사범의 지도 덕분에 금강다회 회원들의 겸손과 배려는

금강사 행사 곳곳에 빛을 발한다. 꽃은일을 마다 않은 봉사행도 그러하고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마음의 여유가 그러하다. "차를 통해 회원들의 내면이 많이 깊어졌다"는 공 사범은 "보다 깊이 있는 차 공부를 위해 3개월 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개편해 가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강다회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일산에서도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 · 茶인들이 즐겨 찾는

茶友茗家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 자세한 문의나 주문은 전화나 이메일로 해주세요!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 1 하룡베이 / 양크르와트 6일 999,000원
*일정 : 인천-양크르와트-하노이-하룡베이-인천 *출발일 : 5월 28일

특선 2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세계자연유산 구채구 112만원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 6월 7일
*일정 :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9일 ▶출발일 :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람하이웨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을 넘어 실크로드-세계최장수 마을 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정 : 인천-라호르-택실라-페사워르-스왈트-칠라스-길기트-훈자-카슈카르-쿠차-우루무치-둔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허제일 황산-황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황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일제선사의 일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 4월 22일 149만원
*일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쉐다곤대탑, 까비라파고다-진신사리전)-인천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6월 3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엄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이말라를 넘어 카투만까지) ▶일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사기(에베레스트를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